韓國女性史의 半世紀를 이끌어온 誠信女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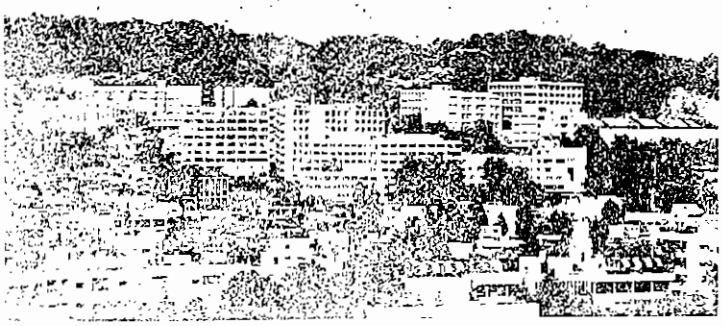
崔 國 善
(誠信女大 總長)

1. 設立背景 및 略史

誠信·知新·自勵을 교육 목표로 한국 여성교육에 횃불을 높이 든 성신은 1936년 4월 28일 雲庭 李淑鍾 박사에 의해 창립되었다. 이때는 일제의 잔악한 탄압과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이 극에 달하던 때였다. 이러한 때 민족의 갱생과 국권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교육밖에 없다는 신념으로 평소 '정성되고 믿음직한 여성이 되자'고 역설하던 설립자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신 역사의 장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성신은 1939년 3월 29일 성신가정여학교로 전환하고 가사 교육을 통해 민족의 전통적 예법과 그 속에 담겨진 애국 애족의 정신을 일깨우면서 1940년 현재의 校地인 성북구 돈암동에 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성신고등여학교로 개편한 후, 교세를 확장하며 발전을 거듭하던 중 1963년 성신의 큰 전환점이 된 성신여자실업초급대학을 설립하였다. 처음은 가정학과, 의상학과, 경영학과, 미술학과의 4개 학과와 신입생 320명으로 출범하여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알찬 교육을 실시하여 실업 단기 여성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 나가면서 또 하나의 변신을 시도하였다. 30여년의 성신 교육의 전통 위에 완성 교육을 지향, 새로운 여성 지도자 양성과 국가와 민족의 요청에 부응한 새 교육을 목표로 실업초급대학을 폐교하고 1965년 4년제 사범대학을 출범시켰다.

출범 이래 여성 교직자 양성이라는 특수한 사명감으로 우리나라 중등 교육계에 이바지해 온 사범대학은 '80년도를 기점으로 고도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폭 넓은 고급 인력의 수용에 한계성을 느껴 종합대학을 목표로 하여 보다 착실한 노력과 분별 있는 예지를 모아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고 이끌어 가는 폭 넓은 대학의 기능을 가짐으로써 국가 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본 대학의 장기 발전 계획에 의거하여 일반 대학으로 그 성격을 전환하게 되었다. 아울러 대학교육의 개선을 위해 학생의 계열별 모집, 종전 학점의 인하, 부전공제 실시, 능력별 졸업 제도 등 실험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일반 대학 체제를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 이로써 본 대학은 학문간의 상호 보완 등을 통해 학문의 발전과 교세의 확장 및 반세기에 걸친 여성교육과 여성 지도자의 배출, 꾸준한 교육 개혁 사업의 추진과 여건 조성, 경영의 합리적 운영과 교육 시설의 확충, 종합화 체제로의 전향과 발전을 추진하여 온 결과로 1981년 종합대학교로 개편하였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비약적 발전은 설립자의 굳건한 교육 철학과 정성을 다해 민족 사학의 터



◀ 한국 여성 私學의 요람으로 傳統과 創造的 學風을 지켜 온 誠信女子大學校는 학문적 성숙을 위해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전을 반세기에 걸쳐 다져온 데 원동력이 있었으며, 모든 성신 가족이 학교 발전을 위해 일치 단결·정진해 온 결과이며 바위산을 정으로 쪼아 닦은 터전 위에 벽돌을 쌓아 올린 지난 반세기는 성실과 믿음의 교육 현장을 지나간 모든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서린 발자취,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학들이 그 나름의 특성과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성신처럼 순수 민족 자본으로 초등·중등·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완성 교육의 터전으로 발전시킨 예는 그리 많지 못하다. 1990년 현재 성신학원에는 성신유치원과 성신국민학교, 성신여자 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성신여자대학교가 있으며 학생 약 1만여 명, 교직원 700여 명의 대성신 가족을 거느리고 있다.

2. 敎育理念

인간 본연의 소질을 개발하기 위한 誠信·知新·自動의 이념 아래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지도적 인격을 닦아 발전하는 국가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영예로운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첫째, 극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새 역사 창조를 위해 정성과 믿음으로 협동·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른다. 둘째, 새로운 지식을 넓고 깊게 닦아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사람을 기른다. 셋째, 높은 이상의 구현을 위해 스스로 일을 찾아 슬기로운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른다. 이 세 가지의 교육 이념은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근저는 '인간' 개조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정·사회·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다. 이 인간이라는 개체의 개조가 없이는 우리의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살아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너무도 오랜 세월을 誠信치 못하였고, 知新치 못하였으며, 自動치 못한 생활을 해 왔다. 그러한 결과, 수차에 걸쳐 외세의 침략이라는 비참하고 눈물겨운 일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함에 한 사람이라도 정성되고 믿음직한 사람, 새로운 지식을 넓고 깊게 구하는 사람, 스스로 움직여 남의 힘을 믿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우리 민족의 앞날은 밝아지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성신교육의 이념은 교육 활동 결과에 너무 조급하지 않는다. 한알의 씨를 뿌리고 즉석에서 열매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일에 오는 결과를 의심하지 않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 지향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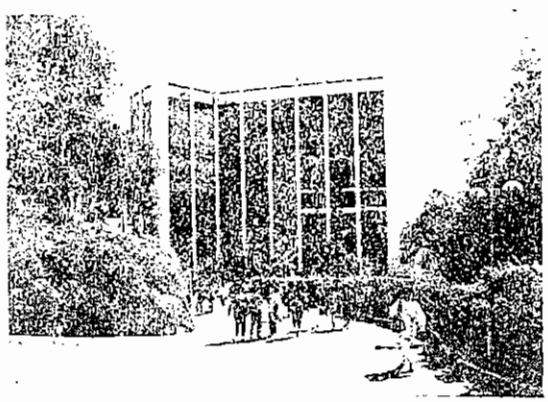
성신의 교육 이념인 것이다.

3. 現況 및 敎育環境

본 대학교는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가정대학, 사범대학, 미술대학, 음악대학의 7개 단과대학 35개 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27개 학과, 박사과정 12개 학과,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개 학과 12개 전공,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2개 학과 12개 전공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9개 부설연구소가 있다. 국제적 상호 이해와 증진, 교육 자료와 정보 교환 등 국제 학술 교류을 위하여 1983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과 중국 남강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어 현재 교수 및 학생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및 새로운 학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설립자의 뜻을 펴고 교육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자의 호를 딴 재단법인 운정장학회를 설립하여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못해 학업 및 연구를 계속하지 못하는 우수한 두뇌를 돕기 위하여 설립자의 사재를 출연함으로써 장학금 지급, 연구비 보조, 교육 및 학술 연구 기관 지원을 중점적으로 해 오고 있다. 사범대학 3층에 위치한 박물관은 민족 생활 문화에 나타난 문화 유산을 조사·수집하고 정리·연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전통적 민족 고유의 생활 양식을 이해하고 새로운 자주적 한국 여성관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 주로 여성 생활과 관련되는 민속품을 수집하고 있다. 특히 경대류는 본 박물관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 토기류, 금속류, 목기류, 서화류 등을 다양하게 갖추고 우리 문화재를 이해하며 인구하는 데 일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1982년부터 박물관 주최로 과학기기전시회, 조선시대경대전, 한국천문도전, 한국목판도전 등의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다. 1988년 8월에 신축 개관된 중앙도서관은 지하 2층, 지상 7층, 총 3,000여평에 참고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일반열람실, 대학원열람실, 교수열람실, 대출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어 총 1,400여석의 열람석과 자동 냉·난방 시설로 쾌적한 열람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1,370석의 대강당에는 무대 장치, 조명, 음향 등이 현대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도봉산 중턱의 약 35만 평의 광활한 면적에 자리한 생활관은 울창한 산림과 아름다운 자연의 절경으로 운치가 넘치는 곳으로 넓은 정원과 3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자연수와 정규 규격의 수영장을 갖추고 있어 각종 학생 단체의 합숙 훈련 장소로 단체 생활을 통하여 친목 도모 및 지도력을 배양함은 물론 교수와 학생간에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것은 정취와 낭만이 서린 도봉산의 운치 속에서 정서 순화를 위한 교육 장소로 활용되는 본교의 자랑 중 하나이다.

한편, 총 재학생 7,000여명과 훌륭한 교수, 행정 직원, 교육 지원 요원 등과 함께 沈揆亨 理事長의 '교육 여건 조성' 최우선 경영 방침 위에 내실을 다지는 교육 계획과 학문 연구에 정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성신여자대학교는 서울 시내의 교통 요지에 아늑하고 짜임새 있는 여성 고등교육의 전당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 있다.



△ 誠信은 敎育理念을 구현하는 데 너무 조급해 하지 않는다. 한 일의 씨를 뿌리고 즉석에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내일에 오는 결과를 의심하지 않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未來指向的 誠信의 교육 이념인 것이다.

4. 發展計劃

본 대학교는 1981년 종합대학으로 개편된 후 지속적인 교육 투자 노력의 결과로 비약적인 발

전을 거듭해 왔으나, 현재의 위치에 안주할 수 없이 성신 발전이라는 지상 목표를 향해 새로운 각오와 지혜로운 학문의 국제화·고도화 경향에 대비한 우수 교수진의 유치와 첨단 실험 실습실의 확보, 보다 선진적인 연구 기능의 제고와 면학 여건의 완비, 국제 교류 확대 등 폭 넓고 깊이 있는 한국 여성교육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위상 정립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문적인 수월성 제고를 도모하여 대학 인구의 급격한 양적 팽창에 비하여 교육의 질적 발전이 병행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며, 둘째로 대학 기구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과 교과과정의 재검토, 우수 졸업생의 진로 지도 강화와 대학발전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셋째로 도서관 업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전산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넷째로 시설 확충 및 교육 환경 개선도 아울러 추진중에 있다. 쾌적한 교육 환경과 면학 분위기 조성의 방편으로 이미 1988년 9월 중앙도서관 및 대강당 준공에 이어 금년 8월말 완공 예정인 체육관 및 주차장을 건설중에 있고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대학 본부도 개축할 예정이며,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본 대학교 소유인 도봉동 소재 임야에 수익용 성신단체연수원 착공도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발전 방향은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상호 신뢰와 이해가 바탕이 된 협조와 지원으로 이룩될 수 있을 것이며 2천년대를 지향하는 빛나는 전통과 창조적 학풍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성신여자대학교가 될 것이다. ※